

전북도-강소성, 새로운 25년 향한 힘찬 응비

실질 경제협력 활성화 '한목소리'

전북도-중국 강소(장쑤)성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해 송하진 도지사의 강소성 공식 방문은 단순한 교류 차원을 넘어 경제통상교류까지 실질적 협력 강화하기 위한 행보여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시각에서도 성장급인 전북도지사의 방문은 1회성 행사가 아닌 교류행사라는 인식과 서열 1위인 당서기를 비롯해 성장, 부상 등 잇따라 고위층과의 면담과 협력방안 협의 등이 이뤄진 점에서 권한이 막강한 중국 정부는 물론 강소성 성민들에게도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중국내 대기업 그룹군인 지씨엘(GCL)그룹을 방문해 새만금을 소개하며 에너지 관련 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다.

따라서 송하진 지사가 이번 방문기간 강소성에 제안한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3대 제안과 투자유치 활동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러우 친지엔 당서기는 송 지사의 양 지방정부간 경제협력 방안 제안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명하며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 공동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적극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투자단을 구성해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

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러우 친지엔 당서기는 또한 "군산(새만금)과 연운항간 패속선 운항 등 바다길을 통한 협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양 지역간 실질적 교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 당서기 성장 등 차례대로 공식 환담

당서기, 투자단 파견·패속선 운항 추진 등 적극 검토 피력

새만금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 중국 대기업 투자 관심집중

우정룡 강소성장은 이틀날 송 지사와의 공식 환담 자리에서 "전북도와 강소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역사, 문화, 경제발전의 속도에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며 "25년전 양 지역 자매결연 당시 지도자들의 넓은 안목으로 현재 활발한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정룡 강소성장은 이어 "송 지사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송하진 도지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송 지사가 러우 친지엔 당서기와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또한 송 지사는 우정룡 강소성장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의 한중경협단지의 무대인 새만금산단 5공구 공동투자 활용 방안, 새만금과 연운항간, 바다길을 통한 협력 등 경제협력방안에 대해 구체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해 양 지역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총괄 집행하는 양 지역의 수장들이 공동 협력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전북도와 강소성은 이제 서로를 경제협력 동반자로 여기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 확실해졌다.

송 지사는 중국 방문기간 동안 중국의 태양광에너지 종합그룹인, 중국 GCL사를 방문해 에리 루오 최고경영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에 맞게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성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며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GCL그룹 에리 루오 회장은 풀리실리온 생산능력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최근 전북도 투자를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해 왔다. 송 지사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위

한 실질적 외교에 있어 상호신뢰와 우정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번 중국 방문은 매우 의미가 컸다"며 "전북도와 강소성은 지난 25년간 쌓아온 긴밀한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비옥하게 만들어 간다면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교류, 기업간 통상교류 등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진성 기자

남북미 3자회담 성사 | 문 대통령 중재역 '결실'

"저도 살면서 실패가 많았습니다. 대통령 당선도 재수로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저지르지는 것은 결코 실패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실패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실패는 오히려 우리를 더 성장시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2월1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졸업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긴 축사 중 한 대목이다. 사회 진출을 앞둔 졸업생에게 전한 응원의 메시지이면서, 자신을 향한 다짐과도 같았던 메시지가 남북미 3자 회담을 성사시킨 대목에서 의미 있게 다가온다.

스스로를 '재수 전문가'라 부르는 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정상간 만남의 자리를 두 번째 도전 끝에 현실로 만들었다. 지난해 한 차례 실패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추진한 끝에 역사적인 장면을 또 한 번 연출

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측 지역 자유의 집 일대에서 만났다. 남북미 3자 정상이 한 자

작년 한차례 실패 속 인내심 갖고 추진 한 끝에 성사 분단 70년 역사상 최초... 각본 없는 드라마에 '무게' 비핵화 중재외교에 대한 회의감 불식 긍정적 효과 기대

리에 모인 것은 분단 70년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비록 의전과 격식을 갖춘 합의를 도출한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남북미 3자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는 평가다. 각본

없는 드라마로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북미, 남북이 따로 만나 각자 나누는 얘기를 공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한 자리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끝까지 거두지 못했던 불신과 반목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특히 이번 3자 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한과 미국 양쪽으로부터 받아왔던 문 대통령의 비핵화 중재외교에 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회담을 마친 뒤 대화를 나누며 나오고 있다.

한 회의감도 불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북한 외무성의 권경근 미국담당 국장은 지난달 27일 개인명의 담화를 내고 "조미대화의 당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와 미국이며 조미 적대관계의 발생 근원으로 봐도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며 남측을 향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오늘의 3자 정상회담에 있어 '철저한 조연'으로 스스로를 낮췄다. 문 대통령은 "원래는 오울렛 GP 공동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한 제안에 따라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다"며 모든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대학입시, 사법고시, 대통령 선거까지 한 번에 이루는 일 없이 재수를 헤아렸던 문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는 실패는 성장의 힘이 된다'는 자신의 철학이 결과적으로 옳다는 점을 입증해 보였다. 특유의 인내심을 바탕으로 전례없는 남북미 3자 회담까지 2년 간 도전 끝에 이뤄졌다. /뉴시스



유광중 상임위원

도선관위, 유광중 상임위원 서동화 사무처장 취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도위원회 전 직원 및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층 회의실에서 신임 유광중 상임위원과 서동화 사무처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무주 출신으로 서울 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서 신임 사무처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남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김진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